

지역 소식통

완주군-완주경찰서

치매어르신 안전망 구축

완주군(군수 유희태)과 완주경찰서(서장 김효진)가 치매어르신이 안전한 완주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8일 완주군은 완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 증가로 지역사회의 치매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내 대학교, 도서관, 은행 등 치매극복선도단체(8개소) 및 치매안심가게(32개소)를 지정하고, 치매 관련 홍보물을 비치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치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을 운영(7개 마을)하는 등 지역 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집중 지도·단속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이동식 중개업소(뺏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검산 예마을 아파트 분양(648세대)과 관련해 검산동 견본주택 주변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일명 '뺏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일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지도 단속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행위(명함·전단지 배포)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뺏다방) 행위와 이중 허위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쳤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외국인 고용·안전 유관기관 '총출동'

김제시, 중소기업 대상 고용·안전 분야 대응 설명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변화하는 외국인 고용·안전 분야에 대한 기업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8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고용&안전 분야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가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외국인 고용·안전 분야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정책 이해도와 이에 따른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했다.

특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을 추진했다.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대의협력과), 경진원(일자리민생본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160명에 이어 2024년에도 김제시가 보내 최다 쿼터인 270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 기존 숙련기능인력(B-7-4) 비자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전북도 기준 160명의 쿼터를 배정받은 상태다.

안전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

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뤄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는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최초 시행 후 개인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50억원 미만의 공사(건설업)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세밀한 대처를 위한 차원에서 김제시가 관계기관과 연계, 추진하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외국인 고용·안전 분야 설명회를 비롯해 앞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 민생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튼튼하게 하여 기업 활동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버이 은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어르신 600여명 참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8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지역 내 어르신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김제제일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내방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및 공연, 2부 어르신 맞춤형 체험 부스 운영 등으로 진행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효 실천 유공 효행자 1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전수했으며 장한아버이 4명과 효행자 15명, 지역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2명에게 김제시 표창을 수여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섬기며 효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길례씨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손자를 바르고 훌륭하게 양육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강경임씨 외 3명이 장한아버이

상, △고령의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미경씨 외 14명이 효행상, △민간 복지기관에 종사하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장선영씨 외 1명이 노인복지발전 민간유공자 표창 등 총 21명이 김제시장 표창을 받았다. 1부 기념식 뒤에는 김제 제일어린이집 어린이들의 합창 공연과 박자연 명창·홍석렬 고수의 흥겨운관소리 공연이 이어져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2부 행사는 예년과 달리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업사이클링 손거울 만들기 체험 등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에서 참여한 17개의 부스에서 어르신들은 직접 쿠키도 풀고 먹거리도 즐기며 기분 건강상담도 하는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국토부 방문해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설명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2025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

이날 유 군수는 국토부를 방문해 완주군 중점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사업비와 국가계획 반영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군의 입지조건을 표명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25년도 사업비(설계비) 3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완주군은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지로 정부의 2030년까지 수소버스 2만대 보급 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

이에 유 군수는 수소차 운행안전성 및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검사센터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추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SOC 사업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사업 반영시 새만금 신항만과 내륙 물류수송을 연결하는 철도수송체계가 확충될 수 있다. 대규모 물동량을 철도로 전환해 물류비 절감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가예산확보 위해 완주군 중점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따까지 중앙부처를 적극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군 중점사업과 현안사업의 중앙부처 예산 반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논리를 보강해 건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구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 사항이다"며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지만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

전북자치도·전주시에 상생발전사업 제안

(사)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가 8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 20대 상생발전사업을 제안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을 지향하는 단체로 완주와 전주의 민간이 주도하는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을 이뤄 전북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도경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와 전주가 하나 돼 100만 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상생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이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을 초석 삼아

100만 도시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완주의 산업과 전주의 전통과 역사, 지역 경쟁력이 결합한다면 통합시의 브랜드가 크게 향상돼 기업 유치 확대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27일의 장막을 거두고 미래세대에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100만 도시를 물려줄 준비를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합시 출범 후 완주군민이 현재 받는 혜택의 10년 이상 유지 △완주군민의 통합시청사 부지 여론조사 결정 등을 제시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 '제명 김제시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요구 성명문 발표

김제시 이통장 연합회(회장 양관용)는 지난 7일 김제시의회 앞에서 여성폭행·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의원이 제기한 김제시의회의 제명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법부의 기각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A의원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톱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됐으며 지난 4월 3일 열린 제2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돼 의원직을 상

실했다. 이통장 연합회는 이날 성명문에서 "연이은 김제시의회의 사건으로 인해 김제시민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에 김제시 이·통장과 김제시민은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제명을 당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A의원의 행동에 김제시민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